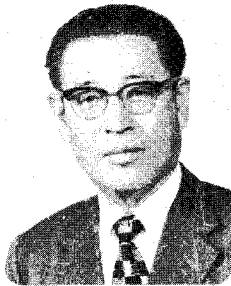


먹거리 이야기



김민환
(FAO 한국협회 이사)
(먹거리연구회 대표)

1. 머리말

“계란과 닭고기는 참 좋은 먹거리 중의 하나이다.”라고 말하면 누구라도 듣기에 별로 이상할 것이 없겠으나, “계란과 닭고기는 참 좋은 식량중의 하나이다.”라고 말하면 어딘가 어색한 말같이 느끼는 것이 있을 것이다. 이것은 바로 지금까지 곡물중심의 식량 개념에 사로 잡혀 축산물과 수산물등이 부식물 또는 반찬등의 개념에는 들어가도 식량이란 개념속에는 들어가지 못한 탓이라 할 것이다.

최근 자주 나오는 말중에 이제 축산물도 식량적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한다는 말을 듣는다. 이것은 참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이 말을 반대로 되새겨 보면 종전에는 식량적 차원에서 다루지 아니 했다는 것이 입증되는 말이 된다. 그 말의 뜻을 더욱 늘여보면 같은 동물성 단백질을 공급하는 수산물에 대해서는 아직 식량적 차원에서 다루지 않고 있다는 말이 될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상 먹는 과일과 채소류등의 모든 다른 먹거리는 식량이 아니라고 하는 말까지로 풀이 될수 있으니 과연 말이란 함부로 간단하게 넘길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이제 까지 우리는 모든 먹을 것을 한 날말로 묶어서 생각할 줄 모르고 식량과 부식물 또는 주식물과 반찬등으로 나누어 생각해 오고 있었음을 알수 있다.

여기에서 잠깐 1976년 9월 18일자 동아일보의 “축산지원시책”이란 제목의 사설중의 한 구절을 소개해 볼 생각이 난다.

『.....우리나라 축산은 정책이 이끌어 온 것이 아니라, 주위 정세에 밀려온 것이라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축산의 구호는 있었으나 축산의 유효(有效)한 정책이 있었다 하기 어렵다. 그 원인은 여러가지로 따질 수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원인은 축산물이 국민의 먹거리 즉 식량의 개념중에 들어 있지 못했기 때문이다. 주곡이니 경제작물이니 축산물이니 수산물이니 하는 분류개념으로만 다루어 왔지 국민의 영양, 균형된 영양, 바람직한 영

양공급원이란 종합개념에서 다루려는 노력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종합개념이란 결코 우리의 식단(食單)이 반드시 버터와 쇠고기를 주로하는 서양식단을 우리의 이상형으로 하자는 뜻이 아니다.

우리국토의 식량공급가능량, 기술혁신, 소비성향의 변화, 소득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단계적(段階的) 그리고 한계적(限界的)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지 않고는 양곡, 축산, 수산, 부식등의 합리적인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

우리나라 축산의 기본적인 어려움이나 앞으로의 문제점도 바로 이 같은 합리적이고 종합적인 국민의 먹을거리 또는 먹거리 정책으로 통합되느냐 못되느냐에 달렸다.

우리는 축산의 장려가 단순히 앞으로 고급화되는 식단을 충족시키기 위한 필요에서가 아니라 국민의 종합적인 영양개념에서 적극적으로 육성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

위의 내용의 사실에서 지적한 바는 바로 여기에서 말 하고자 하는 먹거리 이야기의 요지와 다름 없다고 생각한다.

금년은 병해가 심해서 벼 농사에 감수가 많고 농민과 국가가 다 같이 양식걱정이 더욱 큰 해인 동시에 새시대 새 역사를 창조해 나가야 할 시작의 해인만큼 곡식위주의 식량정책으로부터 먹을거리 정책으로의 전환이 더욱 빨라 지기를 바라면서 다음에 계속되는 먹거리 이야기에 관심을 기울려 주기를 바란다.

2. 민족의 얼이 담겨있는 “먹거리”란 말

우리 민족이면 누구라도 다 아는 먹을거리란 말의 준말이 곧 “먹거리”란 말이다. 우리 말에는 거리가 붙은 낱말이 놀랄 정도로 많다. 먹을거리의 테두리안에 들어가는 말에 찬

거리, 국거리, 끼거리, 회거리, 아침거리, 점심거리, 저녁거리, 양념거리, 참거리, 곰거리, 해장거리, 안주거리, 찌개거리등 얼마든지 있어 “먹거리”란 말은 자주 잘 쓰고 보면 어색할 이가 없다. 더욱 먹을거리와는 관계가 안되는 일반적말에도 거리가 붙은 말이 특히 우리나라에서 많이 개발된 것 같다. 즉 일거리, 땀거리, 입을거리, 만들거리, 구경거리, 읽을거리, 웃음거리, 걱정거리, 이야기거리, 말쑥거리, 풀치거리, 관심거리, 근심거리, 대거리, 패거리, 굶거리, 푸닥거리, 주목거리, 자랑거리, 똥똥 얼마든지 있다. 그리고 지방에 따라서는 먹거리내기, 먹거리장사, 먹거리타령, 먹거리판, 먹거리대장, 먹거리값, 먹거리사정, 먹거리솜씨 등등의 말들을 일상대화에서 현재도 자연스럽게 쓰고 있어 결코 이 말은 새로히 만들어 낸 말이 아니다. 그런데도 사람이 살아가는데 절대로 필요한 이 먹을거리와 먹거리란 말이 한문이 우리나라에 들어 오기 이전부터 우리 조상들이 이 말을 분명히 써 왔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어떠한 국어사전을 봐도 한 낱말로 뚜렷이 취급된 사전이 없다는 사실은 얼마나 우리의 토박이 말들이 한문자 말의 유식하고 권위 있음에 억눌려 왔음을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을 것이다.

먹을거리에 관한 한자말로서는 식량, 양식 식품, 식료, 식물, 음식, 등의 여러가지 말들이 있어 각각 그 나름대로의 뜻을 갖고 쓰이고 있으나 그 어느 말도 먹을거리중 다 포함한 말로서는 적당하지 못한 것이다.

아직까지도 사회 통념상 식량은 일상 먹는 곡식이나 주식물로 알고 있으며, 식품 또는 식료는 식료품의 준말로서 어떠한 가공된 것을 뜻하는 편에 가깝다.

우리는 현재까지 주식물과 부식물로 나누어 생각해 왔으므로 식탁에 차려 놓은 모든

먹을것을 통 틀어 한 낱말로 나타낼 필요조차 느끼지 못할 정도로 가난하게 오랫동안 살아 왔다. 그러나 이제 우리나라는 급진적인 경제성장과 더불어 식생활의 구조가 크게 달라지고 있다. 따라서 이른바 식량정책은 주곡만을 다룰 수 없게 되어 정부에서도 축, 수산물과 과채류등 모든 먹을 거리는 골고루 먹도록 다루려고 노력하고 있는 이때에 먼 옛날로부터 우리의 얼이 담겨져 온 “먹을거리”와 “먹거리”란 말 쓰기를 꺼려한다면 그것은 바로 주체의식의 상실이라고 봐야하며, 우리말의 참된 보배로운 값을 모르는 때문이라 하겠다.

“먹거리”란 말의 사용 타당성에대하여는 본 연구회가 한글학회 발행 한글새소식을 통하여 여러차례 소개된바 있었으며 (제29, 30, 47, 47, 57, 66, 74, 76, 83호) 진주 경상대학안에 있는 배달말학회는 본연구회가 주장하는 “먹거리”에 대해 전적으로 지지하는 결의를 하는 한편 이말을 널리 퍼는 일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한글학회 이사 김계곤님은 “먹거리”란 말이 표준말로 쓰일날이 오기를 기다린다고 격려했으며, 같은 한글학회 이사 한갑수님도 벌써 여러차례 “먹거리”란 말에 대해 방송을 통하여 소개한바 있다.

또 동아일보 사설에서는 앞에 인용한 외에 식량개념의 수정을 위한 먹거리정책을 거론한바 있었으며 (1976. 6. 7. 사설) 미국사료곡물협회 한국지부장 박영인선생은 사람 먹을거리(Human Food)와 짐승 먹이(Animal Feed)등에 대해 거론하는등 이름난 분들중에 이 말쓰기 시작한 글월을 볼수 있게 되었다.

더욱 최근에는 보건전문대학교 교재편찬위원회에서 편집 발간한 표준교재 <급식관리>란 책(책임 연구원: 서울보건대학 이순애학장)

의 내용에 있어 식량(먹거리) 구성비란 말을 썼는데 이는 식량만으로써는 모든 먹을거리를 표현시키는데 부족하므로 “먹거리”중 덧붙여서 그 뜻을 명백히 밝힌 것이라 하겠다. 이 책은 문교부의 연구비에서 이루어진 점과 적국 8개 계열별 대학의 교재로 쓰이게 되는 만큼, 이 “먹거리”란 말의 보급에 거대가 큰 것이다.

한편 국어전문가의 말에 따르면 우리말에는 움직씨의 줄기에 이름씨가 연결된 합성 이름씨에는 덮밥, 익반죽, 먹성, 밥상, 곰상등이 있었서 이 “먹거리”란 말은 조어법상 모순됨이 없다는 견해이고 보면, 이제 우리는 “먹거리”란 말 사용에 주저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할 수 있다.

이 “먹거리”란 말은 현재도 강원도, 전남, 전북, 경남등지와 멀리는 현재 이북인 함경도 등지에 널리 쓰이고 있음이 밝혀지고 있어 약 2000년전 삼국시대에 한문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훨씬 그 이전의 옛날에도 먹을것을 “먹거리”라고 말했을 것이란 심정이 점점 깊어가고 있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순박한 민중의 말속에서 조상의 얼을 되찾는 동시에 국어순화운동에 발맞추어 보다 올바른 식생활개선과 종합적이고 영양적이며 과학적인 먹거리정책을 다가오는 새시대에 퍼나가기 위해 다같이 이 “먹거리”란 말부터 즐겨 쓰기에 힘써야 할 때가 왔다고 본다.

3. 식량정책 말고 먹거리 정책(새식량정책)을

다시 이야기를 계속해 보면 본 연구회는 우리들의 먹을것에 대한 개념의 의식구조등 객관적으로 파악해 보기 위하여 1977년 8~9월 간에 인천교육대학, 경기도 성남 서고, 서울

대학교 식품영양대학등의 학생 109명에 대해 식량개념의 불유를 시도해본 결과 「표1」과 같은 의식구조의 현상을 알게 되었다.

곡류를 식량이라고 생각하는 학생이 97%나 되었으며, 설탕과 기름을 식량이라고 생각하는 학생은 한사람도 없었다. 감자류를 식량이라고 생각하는 학생이 63%이고, 콩류는 45%이었으며, 과일, 채소, 고기, 우유, 계란, 생선, 조개, 김, 미역등을 식량이라고 생각하는 학생은 적은 것은 1%, 많아야 22% 정도밖에 안되었다. 그러나 먹을거리=먹거리에 해당 된다고 생각하는 학생은 설탕류가 81%, 기름류가 72%이었고 곡류를 위시한 그외의 여러가지의 먹을것은 90%로부터 81%까지 끌고루 나타내고 있었다. (식품, 양식, 식료, 식물, 먹이등에 대해서도 물었으나 여기에서 그 내용설명은 생략함)

본 연구회는 별도로 최근 20개 종류의 각종 국어사전중에서 풀이된 식량과 양식과의 내용을 조사해본 결과는 다음 「표2」와 같았다. 즉 조선총독부가 편찬한 제일 오래된 조선어사전을 위시한 7개 사전에서는 1) 일상 식용에 쓰이는 쌀, 2) 먹고 사는 곡식, 3) 식용인 곡식, 4) 사람이 먹을 곡식등으로 조금씩 그 표현방법이 다르나 결국 곡식이란 풀이로 볼수 있었으며, 한글학회가 지은 큰사전을 위시한 14개 사전에서는 1) 먹고 사는 식물의 자료, 2) 먹을거리, 3) 먹고살거리, 4) 사람이 입으로 섭취하는 모든 식물등으로 역시 조금씩 그 표현 내용이 다르기는 하나 결국 공통되는 것은 “먹을거리”란 뜻으로 풀이 되어 있음을 발견했다.

단 가장 일반 대중에 많이 보급되어 있다고 봐지는 이회승지음 국어대사전에서는 양식의 뜻을 먹고사는 곡식과 먹을거리란 두가지의 좁은뜻과 넓은뜻을 함께 표시하고 있었다.

식량과 양식중 양식이 원래의 우리말이고 식량은 일제 36년동안 일본사람들이 쓴 말을 아무런 반성없이 우리네가 그대로 쓰고 있는 것이며, 어떠한 국어사전을 보면 식량은 양식이라고 풀이하고 양식은 살림살이에 드는 식량이라고 동어반복식으로 엉터리 풀이를 하고 있는것도 있었다. 아무던 곡식이란 풀이보다 이제는 먹을거리란 쪽으로 기울어져서 7대 14로 많아지고 있음을 알수 있었다.

더욱 놀랄 사실의 하나는 어린이들의 교육에 직접 영향을 주는 어린이 학생백과사전과 국민학교 국어사전이라고 이름하는 국어사전에 사람이 먹을곡식 또는 먹고사는 곡식 따위로 나타나 있음을 볼때 한심하기 짝이 없었으며 국민학교 교과서 사회 4-2에서 보면 식량은 쌀, 보리, 잡곡, 고구마, 감자등이 마치 식량의 전부인양 가르치고 있어 우리 사회의 통념상 곡식을 위시한 주식물이 식량이라고 생각하는 뿌리가 어릴때부터의 교육까지에 깊숙히 내리고 있어 이와같이 잘못된 개념을 뿌리뽑기는 실로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것이며 이 뿌리를 뽑는데는 우리의 토박이 말인 먹을거리와 먹거리를 되찾아 씀이 가장 빠르고 옳다고 생각되는 것이다.

여기에서 또한가지 가장 가까운 1980년 10월 19일에 농촌진흥청 후원으로 농업과학협회가 주최하여 개최한 농업과학포럼에서 발표된 내용의 한토막을 소개해 보고자 한다. 즉 미곡증산의 의의(意義)와 과제란 주제 발표등 한 연세대학교수 박기혁선생은 당면한 우리나라의 현실에서는 쌀은 중요성을 무시할수 없는 만큼 주식으로 되어 있음을 인정하고 미곡증산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나 그 주제 발표의 서론과 결론에서 아래와 같은 기본적인 문제를 거적하였다.

『식량(Food)이란 통속적으로는 주로 사람이 먹는 곡물 (Grain)만을 지칭하지만 이

사전에서 본 식량양식 낱말 풀이

No.	사	전	명	저	자	출	판	사	발행일자																	
1	조	선	어	사	전	조	선	총	독	부	경성대화상회	1920. 3. 30 (大正 9년)														
2	조	선	어	사	전	문	새	영	(칭	남)	영	창	서	관	1946. 5. 30											
3	국	어	대	사	전	이	회	승	민	중	서	림			1961. 12. 28											
4	옛	센	스	국	어	사	전	감	수	이	회	승	민	중	서	관	편	집	부	민	중	서	집	1974. 11. 12		
5	어	린	이	학	습	백	과	사	전	학	습	사	전	편	찬	부				인	성	출	판	사	1977. 5. 15	
6	국	어	새	사	전	문	화	공	론	사	사	서	부							문	화	공	론	사	1979. 6. 30	
7	국	민	학	교	국	어	사	전	이	상	사	사	서	부						이	상	사			1979. 2. 15	
8	큰			사	전	한	글	학	회											을	유	문	화	사	1947. 10. 9	
9	표	준	새	국	어	사	전	김	민	수	이	효	선							교	학	사			1972. 2. 5	
10	새	한	글	사	전	한	글	학	회											홍	자	출	판	사	1973. 8. 5	
11	국	어	대	사	전	명	문	당	사	서	부									명	문	당			1974. 5. 5	
12	컬	러	관	세	계	백	과	대	사	전	최		석							노	서	문	당			1975. 8. 1
13	우	등	생	국	어	사	전	명	문	당	편	집	부							명	문	당			1977. 6. 30	
14	명	문	새	국	어	사	전	남			광		우							명	문	당			1977. 9. 5	
15	콘	사	이	스	현	대	국	어	사	전	명	문	당	사	선	부				명	문	당			1977. 10. 1	
16	표	준	국	어	사	전	국	어	국	문	학	회								학	문	사			1978. 1. 10	
17	최	신	국	어	사	전	홍	자	출	판	사	편	집	부						홍	자	출	판	사	1979. 10. 25	
18	새	국	어	사	전	문	천	사	편	집	부									문	천	사			1980. 1. 5	
19	다	목	적	종	합	국	어	사	전	김	민	수	홍	문	선					어	문	각			1980. 1. 10	
20	신	크	라	운	국	어	사	전	동	아	출	판	사	편	집	부				동	아	출	판	사	1980. 1. 15	

계

- 위의 사전에서 식품(食品)식료(食料), 식물(食物)등의 낱말을 찾아 보면 대개 다음과 같이 풀이 되고 있음.
 식품 : 식료품 또는 식료품의 준말, 식료 : 음식 또는 그 재료
 음식을 만들감, 음식을 만드는 재료, 식물 : 음식, 식용이 되는
 물건, 먹을 물건 먹을수 있는것.
- 위의 일람표에서 살펴보면 식량과 양식은 같은 뜻으로 쓰이고
 있으나 식량보다 양식이 원래의 우리말임을 알수 있으며.

일람표 (먹거리 연구회 작성)

식량(食糧)	양식(糧食) 양식(糧食) 양미(糧米) 양미: 일상의 식용에 쓰이는 쌀	풀이의내용		비고
		곡식	먹을거리	
먹을양식	먹고사는 곡식	0		1)일상의식품에쓰이는쌀 2)먹고사는곡식 3)식용인곡식 4)사람이 먹을곡식등은 풀이의 내용을 곡식 으로 분류하고 2. 1)먹을거리 2)먹고사는식물의재료 3)먹고살거리 4)사람이입으로섭취 하는 모든식물등은 풀 이의 내용을 먹을거리 로 분류함 3. 이회승저 국어 대 사전에는 먹고사는 곡식과 먹을거리가 표시되어 있음으로 곡식은 7 개 먹을거리는 14개로서 20사전보다 1이 많게 되었음.
양식	먹고사는 곡식, 먹을거리, 식량	0		
양식	식용인곡식, 식량	0		
먹을양식	사람이 먹을 곡식	0	0	
먹을양식	사람이 먹을 곡식	0		
먹을 양식을 통털어 일컬음	먹고사는 곡식, 식량	0		
양식	먹고사는식물(食物)이재료	0	0	
먹을양식	먹고살거리, 식량	0	0	
양식	먹고사는식물(食物)의재료	0	0	
먹을양식	먹고 살거리, 식량	0	0	
사람이입으로섭취하는모든식물(食物)	—	0	0	
먹을 양식의 총칭	먹고사는 식물의 재료	0	0	
먹을양식	먹고 살거리, 식량	0	0	
먹을양식	먹고살거리, 식량	0	0	
먹을양식	먹고살거리 식량	0	0	
양식	먹고사는 식물의재료	0	0	
양식	먹고사는 식물의 재료	0	0	
먹을양식	먹고 살거리	0	0	
먹을양식	먹고 살거리	0	0	
		7	14	

- 양식의 풀이는 곡식, 먹을거리, 먹고사는 식물의 재료, 먹고 살거리, 등이 있으나, 식물(食物) 또는 식물의 재료가 꼭 우리 말로 하면 “먹을거리”이므로 곡식과 먹을거리로 나눌수 있으며, 곡식 보다는 먹을거리 쪽으로 풀이가 기울어지고 있음을 알수 있다.
- 따라서 먹을거리의 준 말이 꼭 “먹거리”임으로 식량 또는 양식 외 뜻은 “먹거리”로 앞으로 표시하는 것이 타당하게 될 때가 올 것으로 안다.

론적으로는 곡물(사료포함), 축산물, 수산물, 그리고 가공품까지도 포함하여 우리들의 식탁에 오르는 모든 식품을 식량이라고 보아야 한다.……중간생략……

따라서 궁극적으로 식량수급 문제를 다루는데 있어 다양한 품목을 포괄하는 관점에서 식량수급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환언하면 식량정책의 과제는 주곡자급에서 식량자급으로 발전하여 국민의 건강을 국력으로 삼는 종합적 식량정책을 강구하는데 있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 식생활구조의 개선을 위한 「영양권장량 기준」을 기초로한 장기 식량 수급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라고 발표하바 있었다.

이는 바로 이 먹거리이야기와 같은 견해라

할 수 있으며 머리말중에 소개한 동아일보의 축산지원시책의 사설과도 같은 논조로 귀착됨을 알수 있을 것이다.

식량에 대한 앞으로 갈바의 방향은, 이미 정해져 있다해도 과언이 아니므로 우리는 국민의 보건과 체위의 향상, 식량생산과 공급 계획 및 식생활 개선을 과학적이고 영양적으로 급속히 발전 시키기 위해서는 이제까지의 곡물만의 좁은 뜻의 식량개념에서 벗어나 모든 먹을거리를 포괄하는 넓은 뜻의 개념을 가진 먹거리정책으로 과감한 전환을 결단해야 될 때가 왔다고 보며 지속적인 축산의 발전도 이러한 테두리 안에서만 가능하다고 믿는 바이다.

「식량개념의 물음」에 대한 답 집계표

1977. 10. 7. 작성

먹을것 개념의구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곡류	감자	콩류	설탕	과일	채소	고기	우유	계란	생선조개	김.미역	기름	가축사료
1) 식 량	97%	64%	45%	0%	1%	11%	22%	18%	14%	15%	1%	0%	0%
2) 식 품	20	42	28	58	51	55	47	54	69	53	54	44	0
3) 양 식	75	57	39	0	14	16	32	30	29	25	16	0	0
4) 식 료	13	31	32	63	48	37	40	43	47	48	49	58	0
5) 식 물	34	46	55	23	65	70	14	13	13	16	41	11	0
6) 먹을거리 (먹거리)	85	88	84	81	90	87	84	85	87	85	83	72	0
7) 먹 이	39	29	30	15	25	36	23	22	21	31	14	17	82

비 고

1. 이 표는 먹을것의 개념에 대한 의식구조를 객관적으로 파악하여 보기위하여, 인천교육대학 1년생 28명, 경기도 성남시 서고 3년생 53명, 서울대학 식품영양학과 4년생 28명 계 109명에 대하여 각 개인별로 「식량개념의 물음」을 1977. 8~9간에 시도하여 본 결과를 집계하여 %로 표시한 것임.
2. 개념의 구분별 의식구조에 있어 40%이상에 해당되는 먹을것은 ○ 글자로 표시하여 본 것임.
3. 「먹을거리」=「먹거리」는 모든 먹을것을 다 포함하는 개념으로 의식하고 있는 사람이 72% 이상으로 나타나 있음.